



나원침 (7526) 김종두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like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부끄럽지 않는 어른 되기 위해 무대 섭니다”

지난 5일 밤 9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촛불집회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한 남성이 무대 위로 올라갔다. 폭넓은 모자와 흰색 바지, 통기타를 들고 하모니카를 입에 문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 슬처럼...”

그의 노래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모두 일어섰고 한 마음으로 노래를 따라 부른 뒤 거짓말처럼 촛불집회가 끝났다.

매일 금남로에서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는 그의 노래가 끝나야 마무리되기 때문에 '집회의 주모자'로 오해도 살 법한 그는 남구 사직공원 부근에서 '작은 음악회'라는 카페를 운영 중인 주권기(40)씨다.

“중·고등학생들이 먼저 거리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기에 무대에 섰죠.”

촛불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 중순,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주씨는 '부끄럽지 않는 어른이 되기 위해' 금남로로 나섰다. 과거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와 '겨레사랑 청년회'의 민중가요 모임 등에서 활동한 경력에 있는 그에게 주씨 측은 매일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도록 했다.

실은 주씨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최대 피

■광주 촛불집회 노래로 마지막 장식하는 주권기씨

집회 참가자들 그의 노래 시작되면 따라 부르며 '집으로' 가족들 한우 300마리 키워... 절박한 생존문제 노래로 표출

해자 중 한 사람이다. 가족들이 강진군 마량면에서 한우 300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800만원 하던 소값이 절반으로 폭 떨어졌어요. 사료 값도 몇 배나 올라 최근엔 가족들이 제 명의로 6천만원을 대출받기도 했구요. 절박함이 느껴지니 노래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는 전형적인 38세대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최두탄을 맞고 사망한 이한열씨 사건으로 촉발된 1987년 6월 항쟁을 온몸으

로 겪은 '87학번'이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민주화를 위해서 거리로 나서던 때잖아요. 지금도 그 당시 심정과 비슷한 것 같아요. 미 쇠고기 수입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끓어오르는 열정은 당시와 똑같아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일 몇 시간씩 손님들에게 직접 노래를 불러주는 그는 수차례 초대 가수로 방송 출연도 했다. 지역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음악프로그램이나 지역 축제

에도 자주 초대돼 제법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역 축제에 초청될 경우 한 차례 50만원가량의 출연료를 받지만 촛불집회는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어서 '무료 공연'이다. 집회에서 무대에 선 날을 계산해서 돈을 준다면 이미 수 백만원 상당의 '봉사'를 한 셈이다.

주씨는 “제가 원해서 무대에 서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며 “나 뿐 아니라 수백명이 자신의 일을 잠시 미뤄두고 오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고 손사래를 친다.

주씨의 바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되지 않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미 쇠고기 정책을 막을 수만 있다면 노래를 부르다 죽어도 좋아요. 수많은 촛불들의 외침을 들었다면 정부는 반드시 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촛불집회 지켜 본 어느 의경의 눈물

“나는 이 시대가 낳은 절름발이 사생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72시간 연속 촛불집회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6일 서울 세종로 버스 정류장에 한 의경의 편지글이 나붙어 시민들의 눈길을 붙잡았다.

A3용지 2장 분량의 글에는 자신을 '경기도에서 기동대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의경'이라고 소개한 글쓴이가 집회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자작시를 실었다.

편지는 '어느 의경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당장 교과서와 싸우기에도 바쁜 시간에/너는 어찌서 촛불을 들고/고작 그것 하나만을 믿고/내 더러운 군화발 앞에 썼는가”라며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매도되는/나를 원망한다”고 표현했다.

이어 “그들은 시위대가, 폭도가 아님/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나는 이상과 진리와 현실과

규율과 감정./이 수많은 괴리 속에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라며 “역사가 내게 어떤 깊은 원죄로 욕보여도 원망하지 않겠다./나는 이 시대가 낳은 절름발이 사생아이므로...”라고 한탄했다.

편지는 자작시에 이어 “밤새 뜬눈으로 집회를 지켜보다 견방 지게 장문을 내려줬다. 전의경을 대표하지도 변호하지도 않겠다. 그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의경을 지원해서 미안하고, 동시대에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글은 지난 1일 열린 집회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시민들이 부상당한 소식이 전해진 뒤 일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어느 의경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자작시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촛불 함성’ 목포·여수·무안 확산

‘72시간 릴레이 집회’ 이틀째... 전국 수만명 참가

‘72시간 릴레이 집회’ 이틀째인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서울 도심 주요도로에서 거리시위를 벌이는 등 전국 곳곳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광주 금남로에서도 이날 저녁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 집회가 열렸으며, 목포와 여수, 영광, 무안 등지에서도 촛불집회가 개최됐다.

이날 낮 12시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주변에 하나 둘씩 집결한 네티즌들의 시민들이 서울 도심 주요도로에서 자유발언을 하며 간단하게 집회를 마친 뒤 오후 1시40분께 두 갈래로 나뉘어 태평로 거리로 진출했다.

시민 2천여명은 청와대로 향했고, 삼청동 입구에서 경찰에 가로막히자 “이명박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 부근 가회동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다 청와대

진출이 저지되자 세종로사거리로 복귀한 뒤 사거리 한복판을 완전히 차지하고 연좌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광장에서 송례문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던 나머지 1천여명도 오후 3시께 2~3개 차로를 이용해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안국동까지 행진했다가 발길을 돌려 세종로 사거리에서 분대와 합류했다.

72시간 연속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대책회의는 오후 4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2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무시

시강행 이명박 정부 심판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저녁이 되자 도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이 다시 서울광장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시민 수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진행됐다.

광주시 금남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휴일을 맞아 가족단위 참석자들이 많았다. 시민 500여명은 촛불을 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이명박 정부 퇴진’ 등을 외쳤으며, 촛불집회가 끝난 뒤에는 금남로 일대를 돌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한편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가 잔디밭에 7천여명의 전사자 위패와 소형 태극기를 꽂은 뒤 이틀째 합동위령제를 진행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현충일 교통사고 잇따라

현충일인 6일 광주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5명이 다쳤다. 6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동구 불로동 서남대병원 앞에서 조모(27)씨가 운전하던 코란도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3m 아래 광주천변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씨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오전 6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제2순환도로 소재 IC 인근에서 고모(42)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고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불법 낚시어선 24건 적발

여수해양경찰은 지난 한 달 동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낚시어선 집중 단속을 펼쳐 모두 2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사례 중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거나(13건), 정원 초과 운행(5건) 등이 가장 많아 바다 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7일 오후 3시 20분께 승객 정원이 4명인 낚시어선 S호 선장 신모(47)씨는 여수시 화정면 가막섬에서 낚시꾼 9명을 태우고 출항, 국동항으로 입항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됐다. /여수=박만규기자 ykpark@

50대 남, 민취성에서 자살 시도

○민취성 상태의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자살을 시도, 경찰이 출동해 제지하는 등 한바탕 소동.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정모(59)씨는 6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시 동구 개림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몸에 시너를 뿌린 후 라이터와 화장지를 들고 “집에 들어오면 몸에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동을 벌였다는 것.

○이로 인해 경찰과 구급대원, 급급차 1대와 소방차 2대가 현장에 출동해 민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한바탕 소동. ○경찰의 가족들은 경찰에서 “평소 알콜 중독 증세가 있는데 술을 마시고 가족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몸에 시너를 뿌렸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병원 치료를 원하는 이들의 요청에 따라 정씨를 입건하지 않고 조사 후 귀가조치.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시와 광주시치과의사회는 '구강 보건의 날'을 시흥 앞둔 6일 중심사 문민정사 앞에서 '치아사랑 캠페인'을 열고, 무료 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총치 예방법 등을 홍보했다. 무등산을 찾은 시민들이 올바른 치아관리법을 설명하는 전시물을 보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구강보건 주간, 치과 무료검진 받으세요

(6월 9일~14일)

광주시, 시치과의사회와 '치아사랑 캠페인'

광주시가 제63회 구강 보건의 날(6월9일)을 맞아 다양한 구강 보건 홍보사업을 펼친다.

시민들에게 구강건강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강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는 6일 광주시치과의사회와 함께 중심사 문민정사 앞에서 현충일을 맞아 무등산을 찾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치아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시 산하 관계 공무원과 치과의사회, 전남대·조선대 치과대학·병원 소속 직원

500여명이 참여해 홍보와 검진, 상담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치실 및 치간칫솔 사용 캠페인'에 맞춰 치실, 치간칫솔이 포함된 구강 용품세트를 무료로 배부하고 사용법을 집중 홍보했다.

또 광주시와 광주시치과의사회는 구강 보건 주간(9~14일) 광주 시내 모든 치과원에서 총치, 결손치, 치주질환, 치아 마모증, 사랑니, 구내염, 의치상태 점검 등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들이 가세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었으며 대체로 맑겠다.

6월 7일

(음 5월 4일)

◇전국날씨

Table showing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광주, 목포, 여수, 안동, 구례, 해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진주, 남원, 흑산도.



서해남부 안바다=남서~서풍 파고 0.5~0.5m, 남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안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4:53 썰물 < 10:03, 16:48 썰물 < 22:00, 여수 밀물 < 11:30 썰물 < 05:34, 17:36

▲해돋이 05:18 ▲해질 19:45 ▲달출 08:40 ▲달짐 23:1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showing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week of June 8th to 13th,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weather icons.